

다카쓰키 관음마을 역사민속자료관

나가하마를 포함한 비와코 호수 북쪽에 있는 고히쿠 지역은 관음상(자비의 보살)이 많다고 해서 ‘관음마을’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관에는 약 30체의 불상이 전시되어 있으며, 그중에는 1,000년 이상 전의 것도 있습니다. 전쟁과 재해 발생 시에도 지역의 불교 신자들이 이 관음상들을 숨기거나, 보호해 온 덕분에 훼손되지 않고 수 세기에 걸쳐 보존되었습니다.

관음은 보살, 즉 부처 다음의 지위에 있으면서 깨달음을 목표로 하는 수행자이며,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히쿠 지역은 나라나 교토, 히에이산의 천태종 사원, 동해에 면한 호쿠리쿠 지방으로부터 유입되는 다양한 불교 종파의 합류점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관음상이 안치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음상은 독자적인 불교조각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관음신앙은 8세기 이후에 특히 번성했으며, 이 지역에서는 현재도 많은 관음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히쿠의 관음신앙은 14세기에 쇠퇴하기 시작해 많은 불상이 옮겨졌거나 폐사에 방치되기도 했습니다. 그 후 16세기가 되면서 반복되는 무사 간의 전투로 인해 마을은 황폐해졌지만 지역 사람들이 관음상을 땅속에 숨기거나, 논밭과 강바닥에 묻어 약탈과 파괴를 막았습니다.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불상에는 이러한 역사 속에서 받은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도 고히쿠 지역과 그 주변의 사원에는 관음상이 모셔져 있으며, 자료관에는 각 사원을 실은 지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가장 가까운 도간지 절 관음당에는 국보로 지정된 십일면 관세음보살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자료관에는 현재의 나가하마시 다카쓰키초 출신의 유학자 아메노모리 호슈(1668~1755)에 관한 자료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호슈는 쓰시마번(현 나가사키현 쓰시마시)에 발탁되어 조선통신사의 외교관으로도 활약했습니다. 호슈가 주장한 ‘성신외교’(성지와 신의 교류)의 개념은 현대의 국제 인식과 다문화 공생에도 통합니다. 그가 남긴 조선통신사에 관한 수많은 자료는 ‘아메노모리 호슈 관련 자료’로 중요문화재에 지정되었으며, 2017년에 유네스코 ‘세계의 기억’에 등록되었습니다.